

중국의 대학개혁과 통식교육(通識教育)

최은진(국민대 중국인문사회연구소)

I. 머리말

중국에서 대학의 모델이 만들어 질 수 있는가. 놀라운 경제성장을 거듭하면서 목표보다 8년을 앞서 대학교육의 대중화를 실현한 중국이 세계 지식생산의 생산지로 부상할 대학의 모델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2010년을 전후하여 확산되었다. 뿐만 아니라 세계대학평가에서도 북경대학이나 칭화대학은 100위 안에 들기 시작했으며 아시아에서 세계일류대학의 수가 가장 많은 국가가 된 것도 이러한 중국대학모델의 탄생에 대한 기대를 하게 한다.

중국의 대학은 서구에서 수용된 것으로 과거 고등교육을 담당하던 시스템을 대체하여 근대지식을 생산하기 위해 운영된 것이다. 청말을 거쳐 민국시기 대학이 고등교육기관으로 완비되어 가면서 서구의 경험을 수용하고 중국의 상황에 맞게 운영해 나갔다. 사회주의시기에는 계획경제에 부합하는 교육기관으로 개조되어 소련의 대학운영 방안이 도입되었다. 사회주의 시장경제가 전개되면서 이에 부합하는 지식의 생산기능을 대학에 부여하면서 세계적 수준의 지식창출을 목표로 중국정부는 적극적으로 대학교육에 대한 개혁을 주도하였다.

중국에서 대학개혁이 중요한 화두가 된 이유는 세계화와 관련이 깊다. 시장경제의 도입으로 세계와 접목하게 된 중국은 세계의 대학체제를 수용해야 했고 대학이 지닌 보편성으로 인해 국제화를 해야 했다. 즉 경제의 세계화추세에 따라 대학의 국제화가 함께 고려되었고 WTO가입을 전후로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서구 대학의 경험에 따라 대학개혁이 전개되고 대학운영의 이념, 교육과 연구의 개혁 등도 함께 고려되어 진행되었다. 이러한 제도적 개혁과 더불어 내용의 측면에서의 개혁도 전개되어 통식교육이 중요한 화두로 등장했다.

통식교육은 세계화에 따른 대학교육의 중요한 대응이었다.¹⁾ 2003년 과학발전관에 따른 인본위주의 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지식기반 사회에 부합할 수 있는 창조적인 인재양성이 목적이었다. 이러한 통식교육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

기존의 대학개혁이나 통식교육과 관련된 연구는 대개 각기 분리되어 연구되었다. 또한 세계화와 관련된 논의에서는 전통적 문화적 요소의 작용과 문명창출이라는 본토화 노력과의 연결을 중국모델과 관련지어 고찰하고 있다.²⁾ 그러나 세계화의 전개에 따른 각 지역의 대

1) 黄海, “当前我国通识教育的困境与突破”, 『现代教育管理』, 2014.4, p.33. 통식교육에 대해서는 黄海, 앞의 논문을 비롯한 많은 연구가 있으며 국내의 통식교육과 관련한 연구는 교양교육의 시행현황에 대한 입장에서 북경대학과 칭화대학의 경우를 고찰한 이영란, “중국대학 교양교육의 현황과 과제: 베이징대학과 칭화대학을 중심으로”, 『교양교육연구』 9(4), 2015.12.과 중국문명을 창출하려는 지적 노력의 일환에서 통식교육의 문제를 고찰한 임상범, “통식교육을 통한 문명대국 중국 만들기”, 『대구사학』, 2016.08.등이 있다.

2) 중국대학개혁과 관련한 연구로는 許美德, 李軍, 林靜, 查强 著, 『21世紀中國大學肖像:向大眾化高等教育的轉形』, 廣西師範大學出版社, 2015.4; 리이리쉬, 『중국 대학교육의 형성, 변화, 개혁』, 한국학술정보(주), 2005.; 陈敏虹, “高校管理何以“去行政化”问题研究”, 『中國管理信息化』, 2013.8이며 세계화와 대학교육과 관련된 연구는 梁燕华, “全球化背景下的高等教育管理:解构中的重构”, 『商丘师范学院学报』, 2015年 01期가 있다.

응이라는 관점을 통해 중국에서의 대학개혁과 통식교육의 전개를 고찰할 때 이러한 대학개혁의 의미와 통식교육의 등장이 서로 연계되어 의미를 보다 풍부하게 이해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개혁개방 후 전개된 중국의 대학개혁이 서구대학모델 즉 서구대학의 운영과 원리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전개되었고 이를 주도한 국가와 국가의 정책 및 각 대학의 주체들이 어떻게 작용하여 개혁의 결과를 통해 중국 대학모델의 형성에 영향을 끼쳤는가 하는 점에 초점을 두고 살펴보려고 한다.

이를 위해 대학제도와 운영의 측면에서 대학개혁의 전개과정을 고찰할 것이다. 또한 북경대학의 사례를 통해³⁾ 이러한 대학개혁의 전개과정에서 드러나는 서구모델에 대한 적용문제 등을 고찰하고 나아가 교육내용이자 방안으로 등장한 통식교육의 운용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이는 중국의 대학개혁이 지니는 중국사회의 의미와 함께 세계화와 이에 대한 중국 지역에서 일어난 대응의 일면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II. 세계화와 중국의 대학개혁

1. 세계화와 중국의 대학개혁 정책

세계화는 각 지역을 동질화 시켜 갔고 대학 역시 지식생산의 글로벌성으로 인해 세계화의 흐름에 노출되었다. 세계화로 인해 대학은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교육과 지식생산을 감당해야 하고 대학은 본국 정부와 국민경제의 지원을 받으면서도 세계적 범위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므로 각국의 대학생은 다원적 신분이 되면서 한 국가의 엘리트라는 가치관도 약화될 여지가 생겼다. 1999년 6월 9일 29개 유럽국가의 교육부장이 모여 2010년 전까지 유럽의 대학교육구를 하나로 하자는 볼로냐 선언이 발표되었던 것은 세계화 흐름과 지역적 대응을 모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2002년 중국의 WTO 가입은 중국의 대학이 국제적 수준에 더욱 부합하도록 하였고 세계은행 역시 경제적 지원을 통해 중국정부의 대학교육정책 형성에 영향을 끼쳤다. 13개 국가의 전문가로 구성된 세계은행 내의 The Task Force Higher Education and Society는 중국대학에 대한 방대한 조사를 진행하여 대학평가에 영향을 미쳤다. 이외 2004년 결성된 64개국의 비정부조직과 국제적 조직의 123명이 활동하는 대학교육관련 국제관리기구도 영향력을 행사했다. 각국의 대학은 글로벌 수준에 부합하는 수월성(Excellence)을 최상화 하기 위한 평가지표에 따라 운영되는 체제 속에 편입되어 갔다.⁴⁾

세계화로 인해 대학교육에 나타난 공통된 변화는 글로벌 시장의 요구에 따라 상품화 되고 국가는 대학의 경비와 자원을 제공하게 되고 대학의 관리자나 이사회가 결정권이 이전보다 더 중요하게 작용되는 계급적 관리 방식을 강화하게 되었다는 점이다.⁵⁾ 이러한 과정에서 대학개혁이 일어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대학개혁과 관련해 볼 때 교육산업화적 개혁은 천안문사건 이후 정부주도적 성격이 더 강

3) 이영옥, “사회주의 시장경제 속의 북경대학”, 『동서인문』 6호, 2016.10.; 張帆, 『세계 대학평가 추세에 따른 한국과 중국의 대학개혁 비교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논문, 2013.; 장리리·김병주, “현대 중국 대학교육개혁 변천과정 분석”, 『비교교육연구』 23(6), 2013.; 趙允德, “중국의 대학운영 자주권신장 개혁과 대학사회의 변천”, 『사회과학연구』 이영옥, “사회주의 시장경제 속의 북경대학”, 『동서인문』 6호, 2016.10 제17권, 2006.; 김영진 외, 『전환기의 중국대학』, 학교방, 2012.

4) 요시미 순야 지음, 서재길 옮김, 『대학이란 무엇인가』, 글항아리, 2014.

5) 王端, 『全球地方化视角下我国大学文化建设研究』, 兰州大学硕士论文, 2012.

화되는 방식으로 전개되었다. 1993년 발표된 <중국교육개혁발전강요中國教育改革發展綱要>는 국가가 대학을 지배하는 기본구조는 그대로 유지하되 대학이 학생모집과 학과설치, 재원조달, 학생취업을 책임지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였다.⁶⁾ 정부가 지원하던 연구비는 1995년에는 23%까지 하락하게 되면서 대학은 경비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했다. 대학 시장화가 주요 조치라고 볼 수 있다.

이후 교육부는 11·5 기획의 일환으로 1998년 <21세기를 향하는 교육진흥 행동계획>을 발표했다. 교육경비의 국가재정에서의 비중 4% 달성을 목표로 내건 것을 시작으로 주요한 내용은 첫째 공건(共建), 조정, 합작, 합병을 통한 대학의 관리체제와 구조개편 둘째 학부와 대학원 신입생 모집정원의 매년 30%씩 확대, 셋째 수익자부담 교육으로의 전환이었다.⁷⁾

이러한 정부가 발표한 개혁안은 세계화에 대응하여 서구의 대학교육 시행 전략과 정책을 수용한 것이었고 이에 따라 대학의 관리체제와 구조가 바뀌는 것과 이를 통해 대학의 대중화와 일류대학의 건설이 매우 빠르게 달성되어 갔다.

그렇다면 대학의 세계적 수준으로의 제고를 위한 개혁은 어떻게 진행되었고 그 결과는 어떠했는가.

그림1>에서 보는 바와 같이 CNKI(中國知網)에서 대학교육의 전구화와 관련된 주제의 논문수량을 연도별 증감으로 표시된 자료로 제공한 것을 참고하면 세계화와 관련된 연구가 2004년 증가했고 2010년 다소 하강하는 것을 알 수 있다. 2003년 과학발전관에 따른 교육정책의 변화와 2004년 공자학원이 세계로 확산되기 시작한 시점이라는 것과⁸⁾ 대학의 대중화가 확립된 것과도 관련지어 이해할 수 있는데 세계화 연구가 다소 하강하는 2010년 이후에는 ‘현대대학제도’와 관련된 연구가 증가하는 것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2010년에는 <대학중장기교육개혁발전기획강요國家中長期教育改革和發展規劃綱要(2010-2020)>가 반포되면서 대학이 국제화를 더욱 활성화 하고 이에 따른 대학운영의 이념과 교육과 연구에서의 개혁 등이 강조되었던 시점과 맞물린다. 즉 대학운영과 관련된 연구도 2010년 이후 소폭 증가하고 있다고 본다면 현대대학제도가 대학치리(大學治理)를 포함하는 큰 범주라는 점을 감안할 때 두 주제와 관련된 연구가 2010년 이후 증가하고 있고 현대적인 대학의 운영의 문제가 중요하게 제기되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6) 趙允德, 앞의 논문.

7) 초기에는 박사학위제도의 관리에서 비리가 나타나는 등 상업화가 초래한 문제가 발생했다.

8) 蔡文伯,李玉芹,“21世纪以来高等教育全球化研究的现实审视与思考——基于文献计量分析视角”,『高等理科教育』, 2015.5, p.35.

그림1> 연구주제의 연도별 증감 추이



출처: CNKI

그런데 2013년까지의 관련 연구의 주제어 관계 분석을 한 연구에 의하면 대학제도의 개혁과 관련된 적은 범주의 문제를 다루는 연구는 적었다가⁹⁾ 2013년 이후 다시 증가하고 있어서 2015년 국가발전과개혁위원회의 13개 5년 계획<中共中央關於制定國民經濟和社會發展第十三個五年規劃綱要>이 발표된 시점과 맞물리고 있어서¹⁰⁾ 대학제도의 개혁문제는 다양화되고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대학의 제도와 구조의 개혁

1) 대학의 대중화와 ‘맥도널드화’문제

1980년 중국의 대학수는 675개이고 연구생원까지 포함한 대학생의 수는 116.53명에서 1989년 1075개 대학수, 학생수 218.31만명으로 증가했었다. 이시기 너무 급속한 확대라고 간주되어 양적 증대가 완화되는 정책을 쓰고자 했고 그것이 1992년부터 정부가 주도하여 세계에서 유래 없는 합병을 진행했다.

이에 따라 1992년에서 2002년까지 10여년 간 733개 대학이 288개로 합병되어 2.55개의 대학을 하나의 대학으로 만든 셈이 되었다. 이를 통해 거대 종합대학으로 만들어 갔다. 이는 1952년 원계조정(院系調整)으로 분화되었던 대학을 다시 통합한 것이라 볼 수 있다.¹¹⁾ 이 과정에서 준비가 되지 않은 전문학교를 승격시켜 대규모, 연구형, 종합형 대학으로 만들게 하여 교육과 연구의 질이 저하되었다.

또한 대학의 합병과 구조조정으로 대학은 당서기, 총장, 처장 등 행정인원의 수와 처장급 기구가 급증하였다. 당정관리자는 교수의 지위를 얻게 되기도 하고 대학에서 행정직원이 전체 교직원의 절반 이상으로 증가하였다. 더욱이 이후 대학의 수는 다시 증가해서 2002

9) 蔡文伯,李玉芹, 앞의 논문, pp.36-37.

10) 2015년 10월 세계일류대학과 일류학과 건설을 총괄적으로 추진하는 총체적인 방안 즉 雙一流정책이 발표되었다. 2030년까지는 대학강국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중앙을 비롯 지방은 지방재원의 지원을 받게 할 것이라고 한다, 임상범, 앞의 논문, pp.12-13.

11) 박종배, “중국 대학교육개혁의 동향과 전망”, 『대학교육』, 150권 0호. 2007.

년 288개이던 대학은 2009년까지 성인대학을 포함한 전국 대학은 2689개, 2015년 2852개로 증가했다.

이러한 대학의 합병과 증가는 시장이나 학술적 상황에 기반한 합병이라기 보다 정부의 강력한 개입으로 이루어졌고 경제성장에 필요에 의한 방식으로 진행된 것으로 단기간에 효율적인 결과를 낳았다. 정부는 나아가 프로젝트 방식 즉 경비를 지원하면서 각종 교육과 과학기술, 인재양성 등과 관련하여 정책을 수행하는 것으로 진행했는데 211공정, 985공정이라는 이름으로 수행되었다.

정부주도로 이루어진 정책 가운데 합병과 함께 성과를 거둔 것은 대학의 대중화 달성이었다. 대학의 대중화 정책은 중국의 내수진작이라는 경제적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 실시된 것이었고¹²⁾ 대학의 대중화 정책은 계획보다 일찍 달성 되었다. 11·5규획에서 1998년 중국 정부는 <21세기를 향한 교육진흥행동계획>에서 2000년까지 대학입학을 11%달성을 목표로 설정하고 2010년까지 대중화의 수치인 15%를 달성하고자 계획했다. 이러한 그런데 2002년 이미 조기 달성을 하게 되었고 입학생은 1998년 108.36명에서 2008년 607.66만명, 2009년 639.49명으로 1998년 보다 24.2% 증가한 것이다.¹³⁾ 2006년에 모입학률은 22%로 러시아, 인도, 미국을 앞서게 되었다. 학생수 자체는 2009년엔 일반대학생 2144.66만명과 기타 대학생을 포함한 전체 대학생 2979만명으로 증가하여 세계 최대 규모를 이루었다. 2015년에는 40%의 진학률을 이루게 되었으며 대학생의 수는 3700만명에 이르게 되었다. 2001년까지 33.45%의 학생수의 증가가 나타났다.¹⁴⁾

전반적으로 경제주의적 정책으로 진행된 교육대중화는 교육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기도 하였다. 이렇게 조기달성이 이루어진 것은 정부가 주도하여 각 지방 대학의 입학생을 많이 모집하게 한 것으로 국가가 관리하고 성급이 조정하게 하는 성급관리체제를 형성했기 때문이었다.¹⁵⁾

그런데 국가는 4% 교육재정비중을 확대한다고 하였지만 국가가 교육에 투입한 경비는 크지 않았다. 당시 중국 국가재정에서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GDP의 2.5%에 불과하여 교육대중화는 학생의 학비와 학교와 은행의 합작 대출의 방식으로 이루어져 대학의 부담이 증가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대학은 이 때문에 규모를 대규모화 하고 학비를 높게 책정하여 사립적 성격을 띠는 獨立學院 등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경비의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 국립대학 일부의 민영화는 바로 대학 대중화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독립학원은 당시 막 생겨나던 사립대학보다 학생모집의 우위에 설 수 있었기 때문에 사립대학(民辦大學) 발전을 저해하였다.

사립대학이 2003년까지도 전체 대학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4.3%에 불과했고 영리추구의 기구라는 인식이 지배적으로 조성되었다. 사립대학은 일반대학 보다 3배 이상 비싼 학비징수, 정원이 초과되는 학생모집, 입학전형기준의 무원칙한 적용, 영리목적의 기업화 경향을 나타냈다. 2007년 318개, 2008년 19.4%, 2015년 5월 현재 722개로 전체대학수의 20% 정도로 증가했다.¹⁶⁾

12) 胡金木, “我国高等教育十年扩招之路的回望”, 『教育學術月刊』, 2009.9, p.8.

13) 楊東平, “关于高等教育的“中国模式””, 『江蘇高教』, 2011.1, pp.6-7.

14) 孟翔飞, “高等教育“麦当劳化”趋势的反思与批判”, 『辽宁公安司法管理干部学院学报』, 2013(04), pp.113-1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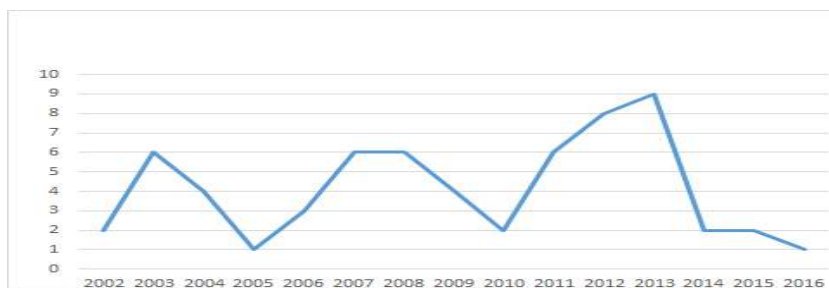
15) 박종배, 앞의 논문, pp.66-75.; 許美德, 李軍, 林靜, 查强 著, 『21世紀中國大學肖像:向大衆化高等教育的轉形』, 廣西師範大學出版社, 2015.4.

16) 2015년의 대학은 전년도 대비 12%가 증가했고 대부분은 민관대학의 증가이며 가짜대학野鸡大学도 많이 급증했다. 민

또한 정부가 정책적으로 직업대학의 등록금을 높게 책정하여 일반대학보다 등록금이 비싼 경우가 많아 직업대학의 발전이 저해되었다. 전반적으로 사회의 고학력화가 조장되었고 실제 학비를 투입한 대비 회수률은 낮았다. 대학의 대중화에 맞추어 대학의 운영방식이나 교육복무의 개선이 동반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비판도 뒤따랐다.

그림 2>는 CNKI에서 대학교육 맥도널드화(高等教育+麦当劳化)를 주제로 검색하여 찾은 62개의 논문의 연도별 증감추이를 그려본 것이다. 이를 보면 2002년이래 관련 주제의 연구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2012년과 2013년까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국의 대학문제를 맥도널드화로 설명하기 시작했음을 의미하고 이는 대학의 대중화가 완료된 시점부터 등장했다. 즉 대중화가 가져온 대학 내에 발생하는 문제를 맥도널드화로 진단하였기 때문이다.

그림 2> 맥도널드화 주제 연구의 연도별 증감



대학의 대중화는 교육의 민주화나 평등을 초래했다는 긍정적 부분이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효율성, 계산가능성, 예측가능성, 통제가능성이라는 ‘맥도널드화’라는 문화용어로 설명하였다.¹⁷⁾ 이미 서구에서는 학생수의 급증으로 대학은 공장과 같이 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생산하고 교수와 학생의 관계는 노동자와 생산된 생산품의 관계와 유사하게 되었는데 중국 역시 이렇게 설명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교육부가 학교의 운영지도사상을 비롯하여 교수진, 교학조건과 이용, 교학건설과 개혁 등등 표준화된 평가지표를 제시하고 이러한 계량화된 표준으로 대학을 관리하게 되었다. 이를 표준화라고 하면 이에 따라 양적 평가에 초점이 두어지게 되면서 학생들의 개성은 무시되고 표준화된 교재만 사용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교수도 지식의 매개자가 되면서 마치 대학은 자동화된 기기처럼 되었다고 하였다.¹⁸⁾ 2006년 8월 <중국청년보中國青年報>보도에 의하면 34.7%의 학생들이 대학생이 된 것을 후회하고 51.5%가 대학에서 실용적인 것을 배운 적이 없다고 답하였다.¹⁹⁾

관대학은 광둥, 강소에 많이 설립되어 있다. 李文姬 张琚, “2015年高校总数增长12%: 九成为本科 以民办为主”, 2015.5.28. 人民網, http://www.cssn.cn/gx/gx_gxxx/201505/t20150528_2014324.shtml; 독립학원의 수는 2010년 322개에서 2015년 266개로 축소했다. 朱建华 彭富玲, “我国322所独立学院步入“5年过渡期”, 中國教育報2, 010.6.17., 科學網 <http://news.sciencenet.cn/htmlnews/2010/6/233424.shtml?id=233424>.

17) 1992년 미국 사회학자 조지 리처가 패스트 푸드점의 원리가 초래하는 불합리성을 맥도널드화라고 규정했다. 절차를 간소화하는 효율성, 질이 아닌 양을 강조하고 생산과 서비스의 수량화를 중시하는 계산가능성(측정가능성), 표준화되고 획일화된 서비스이자 정형화 되어 있는 예측가능성, 통제성의 4가지를 특성으로 분석하고 그것이 획일적이고 동질화된 문화를 만들어 냈다고 주장했다. 이는 베버의 이성화이론을 확장하여 이론화 한 것이라 볼 수 있다. 乔治·里茨尔(George Ritzer), 조지 리처, 김종덕 역, 『맥도날드 그리고 맥도날드화 유토피아인가, 디스토피아인가』, 시유시, 2003. 王云桥 譯, 『虚无的全球化』, 上海译文出版社出版, 2006. 孟翔飞. “高等教育“麦当劳化”趋势的反思与批判”, 『辽宁公安司法管理干部学院学报』. 2013(04), 刘娜娜. “高校教育的麦当劳化特性”, 『中外企业家』. 2012(06).

18) 冒荣. “高等教育的大众化和“麦当劳化”, 『教育发展研究』. 2002(01), p.75.

대학의 효율지상주의는 대학의 운영과 관리에도 영향을 끼쳤다.²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학구성원의 자주성이 확보 되어야 했다.²¹⁾ 그러나 중국은 미국의 현상과 달리 공리성, 행정화, 비상호성, 비량성批量性등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이는 미국은 효율성 강조가 중시되는 반면 중국은 관리적 측면을 더 중시했기 때문이었다.²²⁾

2) 서구 경험의 수용과 ‘세계일류대학’ 건설

미국은 국가에서 소수 명문대학에만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 아닌 자금이 부족하고 수준이 낮은 대학에 분배하는 비집중화 정책을 쓰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칭화대학이나 북경대학 등에 집중적인 지원을 하는 정책이므로 프랑스 등 유럽의 엘리트 대학 정책과 더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²³⁾

소위 정부의 집중적 지원을 받는 중점대학의 정책은 1984년 남경대 총장의 건의로 1986년에서 1990년까지 5개 대학이 특별예산을 지원받으면서 시작되는데 北京大學, 清華大學, 復旦大學, 上海交通大學, 西安交通大學은 중점중의 중점대학으로 지정하면서 시작된 이래 1991년에서 1995년까지 중앙정부에서 또 다시 지원을 받았다.

1991년 211공정은 21세기에 100개의 일류대학과 중심학문분야를 육성시킨다는 계획으로 대학개혁의 모델이 되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연변대, 신강대 등 소수민족지역의 대학도 포함하여 1994년 <중국 교육개혁 및 발전강요>에서 발표되었다. ²⁴⁾ 자원배분이 분산되면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1998년 <21세기를 대비한 교육진흥 행동계획>에서는 985공정이 일류대학, 일류학과를 명시하면서 시작된 세계일류대학건설 계획으로 北京大學를 비롯하여 清華大學, 南京大學, 復旦大學, 上海交通大學, 西安交通大學, 中國科技大學, 哈爾濱工業大學, 浙江大學 등 아홉 곳에서 2003년까지 34개로 확대되었다. 2004년에는 서북농림과기대, 국방과기대, 중앙민족대학 등을 더 포괄되어 15개가 더 추가되었다. 이를 통해 베이징 대학은 칭화대학과 함께 특별자금을 더 지원받기도 하였다. 이렇게 베이징 대학과 칭화대학을 비롯한 소수 명문대학에 집중적인 자원을 지급하는 방식은 정부에 의해 주도된 것이었다.

그런데 1990년대 중국의 대학이 운영의 모델로 한 것은 미국의 대학 특히 하버드 대학이었다.²⁵⁾ 미국의 대학은 유럽의 대학과 달리 자신의 독자적인 대학모델 즉 교수 연구형 모델을 창조했다. 2001년 OECD발표에 의하면 미국의 하버드 대학은 대학부분의 공동발표논문에서 인문과학을 제외한 65만편 가운데 세계논문수의 32%를 산출하였으며 인용정도는 44%를 차지할 정도의 대학의 과학기술지식을 주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이 미국의 대학 경험을 수용하고자 한 것은 이러한 지식생산을 주도하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중국의 미국대학모델 수용과정은 대학의 이념 보다는 구체적인 운영원리를 수용하려는 것이었다. 서구에서는 대학의 보편성을 강조하면서 대학은 학술자유를 추구하는 곳이며 국가와 민족 문화의 한계를 초월한 곳이라는 점을 중시한다. 이러한 보편성을 추구하는 가운데 교육을 보다 강조하는가 연구를 강조하는가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러나 중국에

19) 刘峰, 大众化高等教育的麦当劳化与个性化”, 『出国与就业』, 2011(07), p.83.

20) 林春丽, “高校管理的“麦当劳化”倾向及其超越”, 『高教论坛』, 2009 年 第9 期.

21) 别荣海, 我国高等教育发展的麦当劳化趋势及其超越, 『中州学刊』, 2012(05).

22) 高晶晶, “试论高等教育的麦当劳化”, 『价值工程』, 2013.5, p. 289.

23) 리이리쉬, 앞의 책, pp.325-329.

24) 장리리, 김병주, 앞의 논문,

25) 리이리쉬, 앞의 책, p.361.

서는 교육과 연구를 강조하는 이러한 운영상의 차이에만 주목하였다. 이는 대학이 법률로 자치와 학술자유를 보장받았던 전통과 달리 중국은 법률적 자유의 보장을 받지 못하는 상태라는 점이 이러한 양상을 낳게 만들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²⁶⁾

베이징 대학(北京大學)은 민국시기에는 ‘교수치교教授治校’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구가 거의 없는 대신 교수회 등이 활발하게 작동했었다. 그러나 신중국 성립 후 공산당의 주도권 지위가 확립된 이후 단위화 되면서 1977년까지 교수들의 자유로운 이동이 불가능해졌다. 교무위원회와 학술위원회는 교무위원회의 주임은 당서기가 겸하고 부주임은 총서기가 겸직하고 소수의 원로교수가 부주임과 위원직을 맡고 있기 때문에 형식적인 기구에 불과하다.

1985년 <교육체제개혁에 관한 결정> 이후 ‘교수치교’가 다시 강조되고 초빙제와 임기제 및 승진기준 등의 규정이 다시 완비되었지만 천안문사건 이후 정치사상교육을 강화한다는 목적 하에 대학의 행정기구가 설치되고 교수치교는 ‘당정지도’로 대체 되었다. 또한 1999년에는 차별적 수당 분배제도 개혁안을 만들어 9등급으로 구분해 임금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이후 성과급제와 교원임기제가 도입되고 학과가 통폐합 되었다.²⁷⁾ 당시 당정기구의 감축과 인원감축을 일부 하였지만 2000년 북경의과대학과 합병하면서 행정인원의 수는 다시 증가되었다.

세계일류대학 프로젝트 방식은 정부의 단일방식적 통제를 통해 효율성을 강조하게 했고 이는 계획적 학술을 확립시켰다. 교육의 민주화와 다양화로 가능한 학술규율이 형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거액의 연구경비를 관장하고 단기간의 효과를 보기 위한 양적 중시의 학술 관리 체제가 성립 된 것이다. 학술관리체제는 행정기관이 대학의 사무에 직접 관여하고 행정권력이 점차 거대해지면서 학술권력을 압도하면서 대학의 자주성이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교수와 연구자들은 연구비를 위한 연구에 몰두하게 되었다.²⁸⁾ 베이징대학은 211공정과 1998년의 985공정으로 세계일류대학으로 도약하게 하기 위한 2.17억불의 막대한 지원을 받았으므로 도약을 위한 개혁을 해야만 했다. 이를 위해 2003년 북경대의 총장조리 장유잉張維迎이 주도적으로 북경대학 개혁방안을 제출하였다.²⁹⁾ 장유잉은 서양의 교원 인사제도 도입을 강력하게 제기해온 바 있었고 하버드 대학의 사례를 수용한 것을 강조하였다. 이외 영도소조 조장을 맡은 허지핑 총장과 당서기 민유방의 적극적 지원 하에 개혁을 단행했다. 이들은 당원이면서 정교수였는데 중앙텔레비전에 출현하고 언론사에 개혁안을 알리고 인터넷에도 공개하는 등 언론을 통해 사회적 지지를 받고자 했다.

장유잉은 교원의 처우개선은 재정적 지원을 통해 상당히 개선되었지만 교수들의 학문적 수준이 제고되지 못한 것을 지적하면서 능력위주의 선발과 승진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교원인사관리체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년트랙제도와 강사와 부교수에 대한

26) 許美德, 李軍, 林靜, 查強 著, 앞의 책, p.15.

27) 유경희, 『중국의 고등교육 개혁정책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석사논문. 2001, pp.85~86.

28) 楊東平, p.7.

29) 2003년 5월에 발표한 개혁안은 기존의 정교수를 다시 종신교수 초빙 방식으로 임용하고 부교수의 1/4와 강사의 1/3은 해고하고 신규채용교수는 외국어 강의 가능자로 한다. 교원의 초빙, 채용과 승진을 관할하는 것은 학술위원회가 하되 1/3을 중국대륙 외의 유명대학의 종신교수로 구성한다였고 6월에는 빙임제와 분급유동제, 말미도태제를 발표했다. 정교수를 제외하고 강사나 부교수는 각 2년과 5년이 지나면 두 번의 승진 신청기회를 갖고 승진을 못하면 계약을 파기한다는 내용이었다. 이공학계 부교수는 9년 이내에 인문사회계는 12년내에 정교수로 승진해야만 한다는 규정을 두기로 한 것이다. 이외 북경대 졸업생은 바로 채용하지 않는다. 전국의 10위권에서 탈락된 학과나 연구소는 해산되고 해산된 학과와 연구소의 교수들은 계약이 파기된다. 강의전담과 연구형 교수로 나눈다. 교수회와 관료, 학술위원회 삼자의 상호견제체제 구축을 한다 등으로 되어 있다. 리이리쉬, 앞의 책, pp.312-313.

컨택트제도(Term-contact) 및 학과에 대한 말미도태제를 도입하고자 했다. 이는 하버드 대학의 방안이라고 하였는데 주요 대상은 부교수와 강사들이었다.

기존 북경대학 교수는 사회주의시기의 ‘종신제’ 관행을 따르고 있었다. 이는 정식계약은 하지 않아도 대학에 종신고용 되는 隱性合同이라는 관행을 유지한 것이었다. 그러나 2002년 중국국무원은 ‘사업단위에서 빙임제를 시행하는 것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것을 들어 취업계약의 도입은 국영기업과 마찬가지로 국립대학에도 적용 가능 한 것으로 해석하고 시장경제에 따른 자유경쟁체제 교수채용을 따라야 한다고 교수관리체제 개혁의 법률적 근거로 삼았다. 당시 대학교수들의 95%이상은 사업단위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국가의 법에 해당된다는 의미로 해석한 것이다.

이에 대한 논쟁이 벌어졌다.³⁰⁾ 홍콩대학 아주연구센터의 연구원 간양(甘陽)은 베이징대학 출신으로 시카고 대학에서 유학하고 귀국하였는데 그는 <대학개혁의 합법성과 합리성에 대하여>로 영국이 1988년 대학교수의 종신제를 파기하면서 이를 국회에서 입법화하는 절차를 밟은 것처럼 중국도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대학개혁법안을 먼저 제정하여 관행이던 종신고용을 법으로 명확히 파기하지 않고는 종신고용의 약속을 받은 국가 공직자인 대학교수를 대학이 만든 직무승진법으로는 해고할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³¹⁾ 또한 정년트랙제도는 학술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려는 취지가 발현되는 것이지 시장경쟁을 부추기려는 제도가 아니라고 하면서 베이징대학은 하버드대학을 모델로 했다고 하지만 미국이나 영국 등의 체제를 참고한 것이 아니라 1991년 수립되어 기존의 교수들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이공계 중심의 홍콩과기대의 경험만을 참고했을 뿐이라고 비판하였다.

<중국인(華人)의 대학이념과 베이징대의 개혁>에서는 베이징대학의 개혁은 미국박사출신들로 교수를 충원한다는 것으로 SCI논문의 수를 늘려 북경대학의 대학순위를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보고 이러한 조치는 장기적으로 볼 때 베이징대학을 비롯한 중국의 국내 대학 학자들의 재생산 기반을 약화시키고 베이징대학 출신들의 가치를 절하시키는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세계일류대학이 아닌 삼류대학으로 추락할 수 있지 않은가라고 하고 외국유학열풍을 자제하고 중국 자체의 학문과 학자의 재생산 메커니즘을 갖춰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양대학의 종속물이 아닌 사상, 학술, 문화, 교육 등의 차원에서 중국인들의 독립성과 자주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먼저 중국어 학술지를 위주로 하는 학술평가 기준을 만들고 둘째 중국어로 된 인문사회과학 논문작성을 자연스러운 일로 간주하고 제도적으로 보장한다. 셋째 학술평가를 외국의 전문기준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자고 주장했다. 1베이징대학은 미국박사출신을 채용할 때에도 서양에서 중국학을 연구한 사람이 아닌 서구학문을 연구한 자들에 국한하지 않으면 학문의 종속성이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³²⁾ 이외 <북경대학과 중산대학 개혁에 대한 초보적 비교> 등을 발표해서 베이징대학의 개혁을 반대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서구대학의 학술체계의 본질은 대학교수들의 학술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운영에 있으며 기계적이고 통제를 위한 모방이 아닌 독립적인 학술체제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베이징 대학 출신이자 시카고 대학의 박사과정생인 李猛도 <대학은 어떻게 개혁해야 하

30) 물리대학 퇴임 교수 武際可, 중문과 정교수 陳平原, 개혁의 주요 대상인 부교수 가운데 역사학과 蔣非非, 철학과 章啓群 및 익명의 부교수 貓一鳴 등과 甘陽과 李猛이 주요 반대자였다.

31) 甘陽, “大學改革的合法性與合理性”, 『中國21世紀經濟報道』, 2003.6.5.

32) 甘陽, “華人大學理念與北大改革”, 『博雅』, 2003, pp.107-117.

는가>를 발표해서 시장논리만을 내세운 베이징 대학에 맞지 않는 하버드 모델을 무조건 적용하려는 것에 대해 반대했다. 학술체계가 형성되지 않는 상태에서 교수들을 통제하기 위해 시장으로 내모는 것이고 말미도태제도 역시 미국의 하버드 대학에서도 공대가 미국대학내 10위권에 들지 않아도 유지하는 것을 볼 때 학술의 내재적 논리에 따른 개혁이어야 하는데 베이징대학의 개혁은 통제를 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제도는 결코 미국의 제도가 아니며 미국은 자유로운 연구를 위해 조성된 제도인데 베이징 대학의 개혁안에 의하면 18년간 종신직을 받지 못하게 되어 있어 안정적 연구가 불가능하게 된다고 비판했다.³³⁾ 또한 학술평가체제가 잘 갖추어진 미국은 이러한 제도가 시행될 수 있지만 중국은 학술평가체제가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인재경쟁체제를 먼저 시행한다면 인맥관계, 약력 등 비학문적 논리에 의존하는 행태 속에서 당장의 외부 교수 영입은 미봉책일 뿐이라고 하였다.

이외에도 개혁의 대상이 행정관리체제나 인원에 맞춰지지 않고 교수에 국한되었다는 점도 지적되었다. 행정관리체제에 대한 개혁은 학교의 안정을 해친다는 것이나 당서기에 의해 주도되는 대학의 구조를 바꾸기 위해 교수회와 학술위원회를 부활시키고 여기서 교수의 권리가 이루어져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베이징 대학의 개혁은 다른 대학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쳤고 사회적인 주목을 받았다. 이러한 논쟁속에서 대학개혁에 내재한 공리주의적이고 시장주의적 사고가 문제로 지적되었다.

학술활동의 자유와 자주, 중립의 원칙이라는 대학운영원리를 강조하는 입장이 나타났고 행정관료가 중심이 아닌 교수가 주도하는 교수치교와 민주적 정책결정과 운영이 학술평가 규칙을 제정하고 이에 의거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2003년 ‘과학발전관’이 제창되면서人を本으로 하는 교육정책으로 선회하게 된 것은 성장주의, 경제주의에 기반했던 교육산업화적 교육정책에서 지속적이고 전면적인 교육의 시행을 주창한 것은 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기도 했다. 또한 정부의 주도를 약화하고 관리체제를 개혁하는 것이 필요했다.

베이징대학 개혁안에서 장유잉이 교수회와 행정관료 학술위원회 삼자의 상호견제체제를 구축하려 한 것도 이를 반영하고자 한 것이었지만 교수회는 학술위원회를 견제하는 작용만 할 뿐이었다. 실제 2004년 4월 북경대의 정교수 초빙이 공개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교수회의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었지만 교수회의 역할이 중요하지는 않았다.

성급에 따른 임금격차는 16배 이상 증가했고 외국 명문대학 교수들의 평가의견서가 제출되어야 하는 승진절차에서 위탁비용으로 막대한 비용이 들게 되고 승진채용과정도 공개되지 않는 등 부정적 결과에 대한 지적이 있다.³⁴⁾

그럼에도 세계일류대학 건설 정책 또한 일정정도 성과를 거두었다. 2000년 한 개의 대학도 세계 100대 대학의 순위에 들지 못했지만 2010년 영국에서 발표한 세계대학랭킹에서 북경대학(37위)과 과학기술대학(49위), 칭화대학(58위)이 세계 100대 대학에 진입했고 일본보다 순위에 들어간 대학이 더 많았다.

2008년 대학의 보편성으로 인해 네트워크적으로 발전하는 가운데 영국에서 국제연구형 대학 네트워크 ‘Universitas21’이 결성되어 13개 국가 21개 대학이 서로 교류하고 있고 중국의 복단대학과 상해 교통대학도 참여하고 있는 것도 새로운 흐름이지만³⁵⁾ 2010년 10

33) 李盟, “如何改革大學?”, 『博雅』, 2003, p.163.

34) 張帆, 「세계 대학평가 추세에 따른 한국과 중국의 대학개혁 비교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논문, 2013, pp.72-73.

월 중국의 9개 대표 대학이 ‘세계일류대학건설의 중국모델’이란 주제로 회의를 열어 오랫동안 서구를 모방한 중국대학교육은 이제 세계 지식체계의 중심이 되기 위해서 서구가 설립한 규범과 제한에서 독립하여 중국민족문화의 특징을 지닌 대학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주창했다.³⁶⁾

세계화가 전개되면서 대학의 보편성이 확장되어 가면 학문체계가 중심과 주변부화 되는 상황이 전개되었다. 중심적 지위에 놓인 주도적인 대학이 과학연구와 교육, 대학의 조직유형의 우월성을 통해 지식전파를 좌우하고 지위가 낮은 미약한 대학은 학문적으로 종속적인 지위에 놓일 수 있다. 경제세계화가 지역 간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켰기 때문에 제 3세계 대학은 오히려 주변적 위치에 놓이고 되고 한 국가 내에서조차 지식생산의 중심과 주변적 대학이 형성되게 되었는데 이는 대학의 세계적 위계화가 형성되는 것과 연결되었다.

미국은 전체 3200여개 대학에서 100여개가 연구형 대학이며 미국정부는 대학지원 경비의 80%를 연구형 대학에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대학의 계층화는 사실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실이다. 중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교학형 대학이 대개 구조적으로 종속적인 상태에 놓여 있기 마련이다. 영어로 되는 국제적 학술지의 유통은 지식의 평등한 학술환경 건설과 거리가 있다.³⁷⁾ 중국모델의 건설은 이러한 서구지식체계에 편입되고 중심이 되고자 하는 의미라고 볼 수 있다.

중국내에서 세계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과 비판적으로 대응하고 자주성을 고수해야 한다는 입장 및 보편성의 특수화, 특수성의 보편화라는 절충적 입장을 취하는 등 다양한 반응이 존재한다.

이러한 대학교육의 세계화에 대한 입장은 적극적인 수용을 하는 견해와³⁸⁾ 비판적으로 대응하여 자주성을 고수해야 하는 입장 및 절충의 중간적 입장으로 크게 나뉜다. 대개의 지역에서는의지적인 노스텔지어를 행동책략으로 채택하여 민족국가의 자주성 운동을 전개하여 탈지역화, 재지역화 하는 방식을 취하였다는 점에서 중국도 크게 다르지 않다.³⁹⁾ 또한 호북지역(120)을 제외하고 호남(106), 하남(99), 산서(61), 안휘(100), 강서(96) 등 5개성은 과학기술을 비롯한 지식기술수준이 높지 않는 것과 길림과 복건, 산서 등의 대학이 대중화를 감당한 지역이라는 것은 세계화에 따른 교육산업화의 중국적 적용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⁴⁰⁾ 즉 중국의 지역 내 대학교육의 격차란 방식이 어떻게 재지역화 될 수 있는가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어 가는 중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35) 康瑜, “高等教育全球化：一个全球地方化视角的解读”, 『华东师范大学』, 2008.7, p.1.

36) 楊東平, 앞의 논문, p.6.

37) 菲利普G阿特巴赫, 앞의 논문全, p.106.;王端, 『全球地方化视角下我国大学文化建设研究』, 兰州大学硕士論文, 2012, pp.1-5.; 田京, 罗瑾, ““突破‘边缘’：依附论视域下发展中国家”, 『高等教育的发展路径』, p.100,

38) 任剑涛, “全球化與中國大學的處境”, 『社會科學論壇』, 2006(1).

39) 네덜란드의 경우 세계화로 인해 대학의 대중화가 이루어졌고 이것이 지방의 과학기술 위주의 대학을 발전시키는 계기로 작용하게 되고 이것이 국가 역량의 강화로 이어지고 다시 지역의 대학이 발전하는 과정을 밟게 되면서 지역성이 세계화를 이끄는 새로운 비용창출과 합작의 기회를 만들어가는 작용을 하였다고 한다. 일본의 경우도 一臣鹽澤(Kazuomi Shiozawa)는 아파 듀라이의 주권-교류 연결모델을 차용하여 일본의 대학문제를 분석하였다. 세계화로 일본대 대학의 시장화와 소비주의 파고가 몰려들었지만 경제 제도적 측면에서 점차 본토화 되면서 다양한 특성이 나타나게 되었다고 하고 이것이 서구주도의 세계화에 대해 지역이 자체적으로 대응한 것이라고 하였다. 王端, 앞의 논문, p.14.

40) 管一凡, “我国中部六省高等教育国际化现状及其陷阱”, 『四川職業技術學院學報』, 第 23卷 第 2期, 2013.4.

Ⅲ. 중국 통식교육의 등장과 시행

1. 대학정신의 회복과 통식교육의 수용

2010년 국무원은<국가중장기교육개혁과발전계획강요國家中長期教育改革和發展規劃綱要 2010-2020>를 발표했는데 이는 제한적 정부, 법치정부, 복무정부라는 정부의 운영방향이 바뀐 것과 관련이 있다. “질량제고를 교육개혁발전의 핵심임무로 하며 교육의 내적 발전을 중시하고 학교운영의 특색을 장려하며… 관리제도와 운영기제를 건립하고 교육자원의 분배와 학교작업의 중점을 교학의 연계강화에 둔다”고 한 것은 정부가 관여를 간소화 하고 교육관리체제를 개혁하겠다는 것을 의미했다.

이에 따라 “중앙에서 지방으로 권력을 이관하고 정부에서 학교로 권한을 이양하며 각급 정부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학교운영의 방식을 규범화하며 관리와 운영, 평가를 분리하고, 정치와 학교의 운영은 분리하고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하는 관리체제를 형성”하고자 했다.

대학운영 자체는 자주적 관리를 해야 하며 법에 의거한 운영, 대학의 민주적 감독과 사회의 대학에의 참여 등 운영제도의 변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한다.⁴¹⁾

이와 함께 대학정신으로의 회귀라는 논의도 적지 않았다. 복단대학 교장 楊玉良 교수는 “현대 대학정신이 소실되면서 대학에는 광범위한 정신적 허탈감이 퍼져갔다. 사회적으로 보면 대학을 포함 공리주의가 성행하였다. …대학은 대학자체의 고상함으로 돌아가야 하며 정신적 측면에서 그러해야 한다.”고 하였으며 熊丙奇 교수도 이러한 의견에 찬동하면서 “오늘날 대학은 교육가치관의 방면뿐 아니라 학술수련 방면에 있어서도 적지 않은 저급함이 있고 교육의 존엄과 학술의 존엄을 홀시하고 있다. 대학정신으로의 회귀가 급선무다. 진정한 출로는 대학의 교육본위와 학술본위로의 회귀”라고 하였다. 肖雪慧교수도 “대학내부 격국의 변화와 외부의 간섭과 대학침입이 대학의 품격을 변화시키고 있으며 90년대 이래 십수년간 전체적으로 말해 대학은 정신없이 정신을 버렸다, 고 하였다. 대학의 희망을 대학정신으로의 회귀에 두었다. 대학정신이란 대학자치, 학술자유, 전통에 있다고 하고 반성을 통해 대학의 정도로 돌아가야만 한다, 현대 사회의 여러 제약으로 대학 회귀로의 길은 멀고 험하다라고 하였다.

대학정신이란 대학자치와 학술자유, 전통이라는 것이며 교수치교라고 보았다. 대학문제의 해결은 이러한 대학정신을 바로 세울 때 가능하다는 것이다.

대학운영의 자주적 관리는 학술권위의 건립이라는 주장으로 1990년대 후반부터 증가하다가 2010년 이후에는 ‘탈행정화’ 논의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고 2012년 경에는 학술권위 관련 논문의 수량에 앞서는 것을 아래 그림 3>에서 볼 수 있다. 탈행정화를 통해 행정권력과 학술권력의 관계가 바로잡혀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대학의 자치성과 학술권위의 지상성을 회복하는 현대적인 대학제도를 건립하고 이를 통해 대학 자체의 기능을 회복해야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⁴²⁾

그림 3> 탈행정화(去行政化,) 관본위, 학술권위 주제 논문수량 증감추이

41) 杨东平, 앞의 논문, p.8.

42) 陈敏虹, “高校管理何以“去行政化”问题研究“, 『中國管理信息化』, 2013.8



학술권위와 탈행정화 등의 논의와 함께 중요한 것은 대학운영의 구체적인 방안으로의 교수치교(教授治校)의 문제였다.

2014년 말 그해 5월 4일 시진핑 주석이 베이징 대학을 방문한 뒤 <종합개혁방안>이 발표되었다.⁴³⁾ 과거 당위원회에서 선출하던 단과대학장을 공개적으로 선출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2015년 개정된 「中華人民共和國高等教育法」 39조에 ‘국가가 설립한 고등교육기관은 중국공산당 고등교육기관 기층위원회가 지휘하는 총장(교장) 책임제를 실시한다. 중국공산당 고등교육기관 기층위원회는 중국공산당의 장정과 관련 규정에 따라 기관의 업무를 통일적으로 지휘하고 총장이 독자적인 책임아래 직권을 행사하는 것을 지지한다. “고하고 기층위원회가 기관 내부 조직기구의 설치와 책임자의 인선 토론과 결정 및 기관의 개혁, 발전과 기본관리제도 등 중요사항의 토론 결정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⁴⁴⁾ 또한 중국공산당 베이징 대학위원회이며 베이징 대학의 총장은 정부가 임명하도록 40조에서 규정하고 있어서 대학 내에서 자유롭게 선출하지 못한다. 총장이하의 행정지구는 당위원회 서기가 감독하고 지휘하므로 여전히 베이징대학의 구조는 큰 변화가 없다. 최종임명권이 총장과 당위원회, 교육부까지 이르고 총장과 당위원회 위원장도 정부가 선출하는 것은 변함이 없다는 것이다.

이후 2015년 중국의 학술계에서 ‘교수치교’, ‘교수치학(教授治學)’을 둘러싼 논쟁이 벌어졌다. 이는 대학운영과 관련된 문제로 학술계와 정치담론과의 긴장이 조성되었다.

학술계는 오랫동안 교수치교를 주장해 왔다. 세계화에 따라 중국의 대학이 세계의 보편적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학술자유, 대학자치, 교수치교라는 대학운영의 원리를 따라야 한다는 것이 제기되었다. 중국의 대학이 정치적이며 행정우위의 운영이 이루어지는 것은 미국의 대학과는 다르므로 미국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었다.⁴⁵⁾

세계일류대학이 되기 위해 중국의 대학은 연구형 대학을 목표로 하는데 미국의 연구형 대학들은 교수치교를 한다. 즉 대학의 학술사무의 정책결정권을 교수가 지니고 이를 통해 학교가 자치와 자주를 유지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교수치교는 교수회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교수회의 역량이 크고 교수회의 역량이 대학의 명예를 높인다. 학생모집과 시험과 졸업도 교수가 결정하며 학술활동 역시 교수가 통제한다. 이것이 학술에 바탕을 둔 학술권력의 기초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일류대학일수록 교수회를 통한 학술권력이 크다. 대학의 교수와 학술자료가 결합해 지식을 가공하는 능력을 학술생산력이라고 할 때 학술생산이 활성화하

43) “北京大學綜合改革方案>獲批准全面實施”, 『北京大學新聞』 2014.12.03.

44) 이영옥, 위의 논문,

45) 王洪才, “国际化与本土化:中国大学模式的艰难选择”, 『高等理科教育』, 2013.5. pp.1-6.

기 위해서는 중국의 불합리한 관리제도는 방해가 되는 것이다.

현재 중국의 대학에서 주장하는 교수치교 주장은 세계일류대학의 대학운영방식 특히 미국의 운영방식을 따르기 위함이지만 중국의 20세기 초 북경대학에서 채원배나 청화대학에서 운영원리로 주장되고 운영된 바가 있고 항일전쟁 기간 서남연합대학에서 실제 운영이 되었기 때문에 교수치교의 주장이 더 설득력을 갖게 되었다.

현재 중국의 대학도 교수회를 조직한다. 그러나 당위원회의 영도 하에 교장 즉 총장이 책임지는 중국의 대학관리체제에서 교수회가 당위원회의 행정권력을 좌우하지 못한다. 교수회의 역할이 강화되기 위해서는 법에 의한 정책결정, 민주적인 정책결정등을 제정하고 교수회에게 정책결정권과 감독권이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되었다.

교수집단은 실제 학술권력의 주변적 지위에 머물러 있을 뿐으로 학술관리도 학술의 내재적 규율로 이루어지지 못한다. 대학의 특색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대학의 교수치교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46) 교수치교는 교수를 학교관리에서 적극적인 주동적 위치에 놓이게 하는 것이다.

한편 이러한 견해와 달리 교수치학으로의 전환은 시대적 요구라는 주장도 전개되었다. 즉 교수치교란 상징적인 의미일 뿐이며 현실에는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는 지역에 따라 시기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고 적용되었다는 것이다.

중국에서는 서구의 교수치교의 개념이 다르게 해석되기도 했다. 미국의 경우 서구 중세 대학의 전통에 기반하여 3A원칙 즉 학술자치(Academic Autonomy), 학술자유(Academic Freedom), 학술중립(Academic Neutrality)을 대학운영의 원칙으로 하였다. 그런데 중국의 경우는 학술자유, 대학자치, 교수치교를 대학운영의 원리라고 인식하였다.

미국은 학술자치를 가장 중시하고 학술자유는 학술자치를 보증하는 근거가 되는 원리이며 학술중립은 자치와 자유를 누리기 위한 사회에서 상대적인 초연함과 개관적 통찰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중국의 3대운영원리가 미국과 다른 점은 학술자유만을 철학적 원리로 받아들이고 대학자치와 교수치교는 실제적인 운영원리로 이해했다는 것이다. 학술자치는 대학자치보다 더 큰 범주의 개념이다. 대학자치는 미국과 같이 교외의 기구인 이사회가 운영하는 것에 대응되는 개념이거나 중국의 경우 정부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학술자유는 그러므로 실제운영을 하는 문제와는 별개이므로 교수치교, 총장치교, 교수치학과는 다른 문제라고 보기도 한다. 교수치교는 유럽의 역사에서 실제 운영되기는 하였다. 미국은 독일이 교수치교 모델을 모방하면서도 대학의 운영에서는 교외 이사회가 치교하고 총장이 치교하는 방식을 채용했다. 이러한 총장치교와 교외이사회의 운영이 미국식 운영모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도 교수의 지위가 저락되면서 교수치교가 도외시 되어갔다. 중국의 경우에 초기 베이징 대학의 교수치교는 학술자치가 결여된 문화적 상황 때문에 오히려 학벌과 학술패권만 만들어 냈다. 세계적으로 볼 때 교수치교는 교수치학으로 점차 축소되어 갔다. 이는 국가가 대학에 대한 관여 강화와 함께 이루어진 것인데 국가의 경쟁력으로 대학이 중시되었기 때문이다. 국가의 이익에 따라 대학이 작용하게 된 것은 미국 뿐 아니라 중국도 마찬가지였다. 과교흥국에서 교육강국으로 교육이 중요한 가치로 부상하게 되면서 대학은 통제와 관리의 대상이 된 것이다. 교수치교의 기초는 이로 인해 사라진 것이다.

대학조직은 국가의 배치에 따라 공공조직화 되었다. 대학의 주인은 교수나 학생이 아니며 공공조직화되어 갔다. 공공조직화한 대학은 단순한 학술조직이 아니다. 중국의 대학은 대

46) 陳媛, “教授治校:建設一流大學的戰略選項”, 『中國高教研究』, 2012. 5期, p.32.

학내의 당위원회 지도하의 총장 책임제로 국가와 당의 이원치리체제와 결합된 다원공치이므로 세계대학의 신공공관리주의와 유사한 것이라라고 주장했다.

교수위원회, 교무위원회, 이사회는 상징일 뿐이며 이러한 조직은 자문의 역할을 할 뿐이다. 행정역량은 이 과정에서 권력을 행사하게 되었고 학과의 구분이 세분화되고 대학의 규모가 커지고 복잡화됨에 따라 대학의 교수치교는 교수치학이라는 현실로 퇴화된 것이다.⁴⁷⁾ 동북사범대학의 경우 2003년 교수위원회를 선포하여 교수치학을 주창했다.⁴⁸⁾ 교수는 계약을 통한 직업인으로 변모했으며 교수치학 역시 부단히 축소되고 사회적 영향력도 약화되고 있다는 것이다.⁴⁹⁾

이러한 제도적 운영에 있어서 학술자치와 자유를 위한 교수치교의 논의가 실제 대학의 운영에서는 반영되지 못한 실정이지만 대학의 교육내용과 방법의 변화는 필요했다.

통식교육은 세계화가 대학교육에 준 충격에 대응하는 조치였고 대학의 지속발전을 위한 중요한 보장으로 간주되었다.⁵⁰⁾ 미국의 교양교육에 대한 경험을 많이 수용하였다.⁵¹⁾ 미국에서 통식교육과정체계가 만들어진 것은 하버드 대학이며 1943년 하버드 대학 총장이 1945년 <자유사회에서의 통식교육>이라는 책을 저술하여 인문소질 촉진을 강조했다.⁵²⁾ 실제 대만과 홍콩, 마카오에서도 시행이 되었다. 리버럴 에듀케이션이 홍콩과 대만에서 통식교육으로 번역되면 이렇게 사용되게 되었다.

중국은 1990년대 중기 이래 문화소질개혁에 대한 논의가 중시되면서 대학에서는 통식교육을 시행하게 된 것이기도 했다. 1998년 王英杰의 <이상적 대학을 말하다試談理想的大學>에서 대학이 보통교육과 전문교육을 결합해야 한다고 한 것에서 학계의 관심을 확장시켰고 1999년 ‘통식교육과 대학문화발전’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개최되었다.⁵³⁾

1999년 6월 <교육개혁의 심화와 소질교육의 전면적 추진에 관한 중공 중앙과 국무원의 결정>이 공포되었는데 잠재능력을 지닌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교육전반에서 중시되었다. 학생의 자기주도적 능력의 배양이 강조되었다.

이공계 학생들에게 문화소질교육을 하자는 것에서 시작되었다. 북경대, 칭화대, 인민대, 북경사범대학, 천진의 남개대학, 절강대학, 호북의 무한대학도 시행하였다.⁵⁴⁾ 복단대학의 경우 2006년에는 잘 정착되어 시행되는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⁵⁵⁾ 통식교육은 대학마다 다르게 진행했는데 그것은 전공교육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관련이 있다.⁵⁶⁾

통식교육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미국 사례에 대한 검토가 많이 이루어졌는데 북경대학출판사에서 黃坤錦 교수가 <미국대학의 통식교육-미국심령의 반등>에서 미국의 실제 사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다.⁵⁷⁾

47) 王洪才, 위의 논문, p.13.

48) 史宁中, “实行教授委员会制、凸显“教授治学””, 『中国高等教育』, 2005.

49) 陈伟, ““从身份到契约”: 学术职业的变化趋势及反思”, 『高等教育研究』, 2012.4.

50) 田玲, “全球化背景下本科生人才市场需求特点及其对大学通识教育与专业教育关系的影响研究”, 『中国教育经济学术年会论文——北京大学论文集』2004年: 黄海, 앞의 논문, p.3.

51) 皮凤英, “美国大学通识教育改革趋势研究——对中国高等教育的启示”, 2004

52) “哈佛大学通识教育经验的借鉴与启示”, 『藝術科學』, 2016.11

53) 楊連生, 趙亞平, 王劍, “中國大學文化研究述評”, 『文化學刊』, 2010.6.p.80.

54) 李曼丽, 杨莉, 孙海涛, “我国高校通识教育现状调查分析——以北大、清华、人大、北师大四所院校为例”, 『清华大学教育研究』, 2001, 22(2), pp.124-133; 余凯, “关于我国大学通识教育的调查与分析”, 『现代大学教育』, 2003(1), pp.87-91.

55) 王生洪, “追求大学教育的本然价值——复旦大学通识教育的探索与实践”, 『复旦教育论坛』, 2006年05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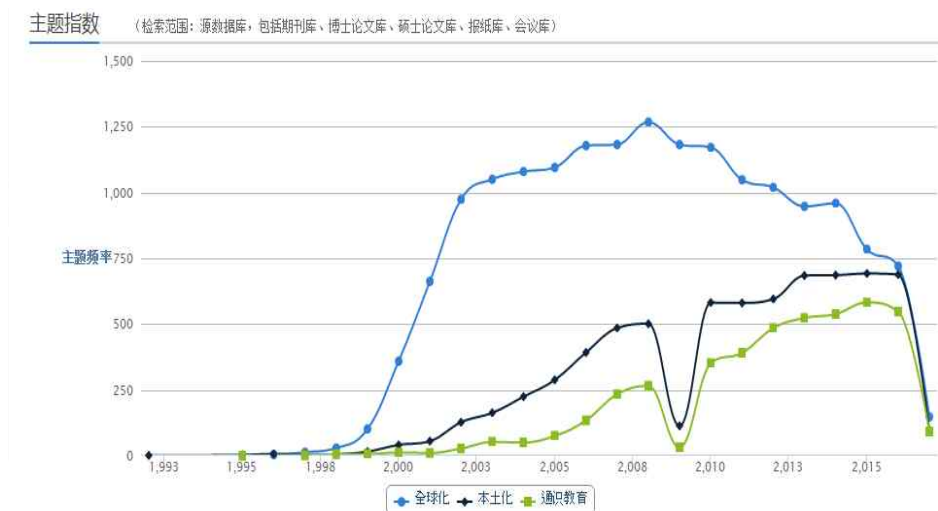
56) 陈向明, “从北大元培计划看通识教育与专业教育的关系”, 『北京大学教育评论』, 2006年03期.

57) “心灵的攀登:科技、人文、社会的整合与沟通——谈黄坤锦教授《美国大学的通识教育》

대학이 학생의 창의성과 개성을 발휘할 수 있는 교육모델을 만들기 위해 소질교육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은 대학의 공리적 운영에 대한 비판에서 나온 것이기도 했다.⁵⁸⁾ 하지만 초기에는 주로 고전교육이 주요한 내용으로 교과내용의 부족을 지적 받았다.⁵⁹⁾ 대학마다 개성이 없어서 개성을 중시한다는 통식교육의 이념도 구현되지 못하였다.⁶⁰⁾

2. 중국대학교육 모델로서의 통식교육

그림4> 세계화와 통식교육 연구 증감추이



세계화로 인해 일류대학의 모델로 따라가기도 하면서 대학의 대중화가 초래한 대학운영의 문제인 형식과 내용의 모든 측면에 대한 대응으로 나타난 것이 통식교육이라고 볼 수 있다.

2009년 10여년에 걸친 통식교육을 검토하면서 서구의 경험을 수용하되 중국의 전통을 개조하여 중국 현실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는 견해가 제기되었다.⁶¹⁾ 2009년 통식교육의 실험으로 中山大學의 博雅學院은 35명의 신입생을 모집하여 4년간 교육을 하는데 학과를 나누지 않으며 서구와 중국의 고전저작을 읽는 엘리트 교육을 하는 것으로 원장은 깐양이었다.⁶²⁾ 박아는 직업교육과 대비되는 단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를 차용하여 통식교육과도 다소 거리를 둔 중국적 의미를 강하게 내포했고 주로 인문교육에 초점을 둔 것은 서구의 통식교육과는 다른 것이었다.⁶³⁾

북경대학은 통식교육을 시행하여 왔다.⁶⁴⁾ 전문교육과의 비중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중시했고 중국특색의 박아교육을 진행한다고 하였다.⁶⁵⁾ 2015년 5월 시나왕 사이트에 소개된 원배학원

58) 胡金木, “我国高等教育十年扩招之路的回望”, 『教育學術月刊』 2009.9.

59) 施志高, “通识教育:通俗化还是教化”, 社會科學報, 2009.: 罗昌智, “我国高校通识教育历史与现状的双向反思”, 『文教资料』, 2008(3), pp.176-179.

60) 舒颖, “通识教育课程个性化研究”, 『中南民族大学』, 2008年.: 张东海, “通识教育:概念的误读与实践的困境——兼从全人教育角度理解通识教育内涵”, 『复旦教育论坛』, 2008年04期.

61) 康全礼, “我国大学通识教育的反思”, 『江苏高教』, 2009(2), pp.78-81.

62) 魏英杰, 『杭州日报』, 2009.

63) “大学通识教育:心灵的攀登”, 『解放日报』, 2009.10, 張曉艷, “通识教育:舶来品走着来时路”, 2009.

64) 陈晓辉, “通识教育与促进当代中国人的全面发展——有感于北京大学元培学院的教育理念”, 『黑龍江高校研究』, 2010(5), pp.36-38.

은 채원배 총장의 이름에서 유래했는데 세계우수대학의 성공과 경험을 차용하여 기초강화, 교차촉진, 선택중시, 교학탁월(加强基础, 促进交叉, 尊重选择, 卓越教学)을 방침으로 중국특색의 박아교육계획과 북경대학의 풍격의 본과인재배양모델을 시행하는 것이라고 한다. 우수한 교수와 기숙제 서원을 기초로 하고 국제교류도 활발히 진행해서 애국과 국제적 시야를 모두 갖춘 고급소양을 지닌 인재를 배양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였다. 여기에서 보면 박아 통식교육이란 표현을 사용하는 전문적 지식과 비판적 사고력, 동시에 풍부한 문화적 소양과 사회책임감, 역사적 책임감을 지닌 인재상을 제시했다. 8개의 통식교육 핵심과정은 토론을 강조한다. 2014년 종합적인 학과전공을 만들었는데 통재배양을 목적으로 하며 학과를 뛰어넘는 새로운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혔다. 2014년 20명을 모집하였으며 교수진은 과학원 원사, 국가천인계획전문가, 장강학자, 국가청년기금획득학자등이라고 밝혔다. 중산대학과 달리 인문학으로만 이루어진 것은 아니며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졸업생의 진로를 보면 계속 진학한 경우 국내 50%, 유학 30%, 취업 15.1% 정도로 취업보다는 연구자 계통으로의 진출이 많았다. 현재 원배학원 원장은 미국 프린스턴대학 교수이며 중국과학원 원사인 鄂维南 북경대 교수이다. 66)

하지만 2016년 獲狐 사이트에 올라온 글인 “북경대학 대응에 직면하다: 원배계획을 실패한 계획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北京大学曾直面回应：元培计划难道是个失败的计划”라고 하고 통식교육과정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데 교수진의 문제를 제기했다. 67)

2011년 현재 중국의 통식교육은 이념상 협소한 부분이 있다. 문과와 이과를 관통하는 포괄적인 지식과 전인격적인 인재의 배양을 목표로 해야 한다. 68) 미국의 연구형 대학모델은 통식교육을 중시해왔다. 미국의 특성상 다원문화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통식교육 과정이 전체 37.50%를 차지하는 것으로 대학마다 개성있는 과정을 시행하고 있다는 주장을 보면 여전히 미국의 사례를 참조하는 것을 알 수 있다. 69)

지금까지도 통식교육은 연구중이다. 70) 서구의 통식교육모델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중국에 존재하던 통재의 개념이 작용하였다. 연구형과 교육형의 두 가지 모델이 서구에서도 존재했는데 중국에서도 이러한 전통이 있었다. 칭화대학의 梅貽琦가 주장했던 전인적인 통식교육이 중국에서 통식교육을 시행하는데 영향을 끼쳤다. 이미 중국도 전통적으로 통재를 배양하고자 했다고 하는 ‘士’와 결합하여 군자와 현대지식인을 접목시키려 하였다고 한다. 71)

도덕수양이라는 유가의 전통이 인문교양이라는 서구의 교양교육의 내용과 같은 위치로 인식될 여지가 있었다. 대학의 정신과 통식교육의 전통과 오늘날의 계승을 고찰한다. 72)

대학이 자유로운 사상창조 공간이 되어야 소질교육으로서의 통식교육이 제대로 수행될 수 있고 이를 위해서는 대학의 교수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도구적 이성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 73)

65) 宋鑫, 苏彦捷, “北大元培学院通识与专业教育结合的探索”, 『北京教育高教版』, 2016.11, pp.68-80.

66) 北京大学院系介绍：元培学院 <http://edu.sina.com.cn/gaokao/2015-05-12/1402468441.shtml>.

67) 天科学堂自主招生2016-02-21 10:24:35, <http://mt.sohu.com/20160221/n438004744.shtml>.

68) 龚金平, “我国大学通识教育的实施现状与反思”, 『黑河学刊』, 2011年03期.

69) 汪征, “美国研究型大学通识教育的文化传播策略”, 『现代教育管理』, 2011年第6期, p.115.; 刘蒨斐, “全球化视角下哈佛大学通识教育的发展及启示”, 『四川教育学院学报』, 2011年06期.

70) 贾宏宇, “对我国大学通识教育的反思研究”, 『当代教育实践与教学研究』, 2016(1).

71) 辛智慧, “通识教育的理想与现实”, 『文化纵横』, 2012. 3期.

72) 王洋, “我国大学通识教育研究”, 『华北水利水电大学』, 2014.

73) 邵盈, “当代高等教育中的麦当劳现象”, 『南京工程学院学报(社会科学版)』, 2011(03), p.44.; 叶倩, “从社会的麦当劳化到大学的麦当劳化”, 『法制与社会』, 2014(31), p. 210. 刘春山, “论当今教育研究的“麦当劳化”, 『沈阳教育学院学报』, 2007(05), p.34.

문제는 중국의 통식교육은 미국과 다른 수월성을 확보할 수 있는가라는 점이다. 대학의 대중화시대 소수 엘리트교육을 지향하는 요소를 지닌 통식교육은 오히려 중국적 특성의 지역화를 통해 세계적 보편성을 획득하기 어려울 수 있다. 중국내 대학의 서열화와 위계화가 아닌 수평적 네트워크를 통한 지식창출의 새로운 모색이 필요하다.

중국 대학은 유럽의 대학과 같은 강한 집중화된 시스템을 갖추고 미국의 교양교육을 강조하는 양자의 혼종 형태를 보이고 있다. 과거제도를 바탕으로 하는 인재양성과 자유로운 학문추구라는 두가지 전통이 함께 혼용되는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서원의 전통과 정신을 강조하는 것은 창조적 심성의 수양이라는 인식과 연계된다는 것이다.

대학의 학문적 부패가 발생한다. 이는 정치적 권위주의를 통해 정치적인 효율성과 사회적 안정성을 제공하고 재정적으로 거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지만 실제적인 자주성을 획득하려는 경향도 존재할 것이다. 학문의 실제적 발전을 대학이 담보하기 위해서는 서원정신을 계승하고자 하는 노력에서 가능할 수 있다. 즉 서원정신과 서구의 학문자유를 연계하여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이것이 대학의 중국적 토착적 부분을 통한 서구 대학 시스템의 재구성일 수 있다.⁷⁴⁾

IV. 맺는말

대학은 살아남을 수 있는가.⁷⁵⁾ 인터넷의 급속한 발전과 새로운 교육방식의 출현 등으로 대학은 도전을 받고 있다. 중국의 대학은 2000년을 전후해 급속한 양적 질적 확대와 발전을 거듭하였다지만 대학개혁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 것은 여전히 이원관리체제에 따른 대학의 자주적 발전의 불가능이며 구조는 변화하지 않은 채로 지식생산의 중심적 지위에 놓이기 위한 기제만을 적용하고 있다. 새로운 포도주는 새로운 부대에 담겨야 잘 익겠지만 새로운 포도주를 헌 부대에 담고 포도주를 닦하는 형국이다.

《참 고 문 헌》

박종배, “중국 대학평가의 동향과 전망”, 『대학교육』, 133권 0호, 2005.

_____, “특별기고 : 대학 정신에 대한 새로운 탐색 -『대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소개와 논평-”, 『교육사학연구』, 16권 0호, 2006.

_____, “중국 대학교육개혁의 동향과 전망”, 『대학교육』, 150권 0호, 2007.

요시미 순야 지음, 서재길 옮김, 『대학이란 무엇인가』, 글항아리, 2014.

이영란, “중국대학 교양교육의 현황과 과제: 베이징대학과 칭화대학을 중심으로”, 『교양교육연구』9(4), 2015.12.

이영옥, “사회주의 시장경제 속의 북경대학”, 『동서인문』 6호, 2016.10.

임상범, “통식교육을 통한 문명대국 중국 만들기”, 『대구사학』, 2016.08.

조지 리처, 김종덕 역, 『맥도날드 그리고 맥도날드화 유토피아인가, 디스토피아인가』, 시유시, 2003.

甘阳, 『通三统』, 生活·读书·新知三联书店, 2007

康瑜, 『高等教育全球化: 一个全球地方化视角的解读』, 华东师范大学, 2008.

高晶晶, “试论高等教育的麦当劳化”, 『价值工程』, 2013.

郭丛斌, 孙后明, 赵国宇, “浅析北大清华与世界一流大学的差距”, 『教育学报』, 2015.

邱小雲, “書院教育的校園文化特徵及其歷史地位”, 『書院』, 第4期, 1994.

74) KATHRYN MOHRMAN, *The China Quarterly*, 217, March 2014, pp. 293-295.

75) 薛涌, “大学会消亡吗?”, 『南方都市报』, 2011.8.12.

杜彦魁，“凤凰涅槃——大学精神的回归”，『人民网，www. people. com. cn』，2007.8.30.

梁燕华，“全球化背景下的高等教育管理:解构中的重构”，『商丘师范学院学报』，2015年01期

刘娜娜，“高校教育的麦当劳化特性”，『中外企业家』，2012(06).

刘峰，“大众化高等教育的麦当劳化与个性化”，『出国与就业』，2011(07).

刘超，“中国大学:历史、现状及其他”，『社会科学论坛(学术评论卷)』，2009年03期.

刘春山，“论当今教育研究的“麦当劳化”，『沈阳教育学院学报』，2007(05).

陆乐“重塑大学精神”，『徐州师范大学报』，2009.4.20.

孟翔飞，“高等教育“麦当劳化”趋势的反思与批判”，『辽宁公安司法管理干部学院学报』，2013(04).

冒荣，“高等教育的大众化和“麦当劳化”，『教育发展研究』，2002(01).

闵维方，“关于一流大学建设的几个问题”，『北京大学教育评论』，2003,3,26-31.

博雅主编，『北大激进变革』，华夏出版社，2003

潘懋元，“对高等教育大众化的反思和展望”，『探索与争鸣』，2009,(2):4-6.

别荣海，“我国高等教育发展的麦当劳化趋势及其超越”，『中州学刊』，2012(05)

菲利普G阿特巴赫，“全球化与大学- 不平等世界的神话与现实”，『北京大學教育評論』，第4卷 第1期,2006.

舒婷婷，“高等教育的麦当劳化思考”，『传承』，2013.

石震,任林礼,“试论“麦当劳模式”下的高等教育的非理性”，『吉林省教育学院学报』，2013(07).

荀振芳，“大学精神的守望与回归”，『江苏高教』，2000.

杨东平,『大学精神』，文汇出版社，2003.

_____,“关于高等教育的“中国模式”，『江苏高教』，2011.1.

余小波，“全球化背景下我国高等教育国际化与本土化的思考”，『長沙理工大學學報』，2004.3.

阎光才,“对大学人事制度改革的反思”，『探索与争鸣』，2003(10).

王端,『全球地方化视角下我国大学文化建设研究』，兰州大学硕士论文，2012.

王学珍,郭建荣 主编,『北京大学史料』，北京大学出版社，2000.

王香花,“全球化进程中高等教育本土化问题的思考”，『華北工學學院』，2004.

王洪才,“国际化与本土化:中国大学模式的艰难选择”，『高等理科教育』，2013.5.

熊丙奇,“大学的麦当劳化和自我麦当劳化”，『文汇报』，2010.

_____,“大学精神如何回归?”，『中华工商时报』，2010,7.23

任剑涛,“全球化與中國大學的處境”，『社會科學論壇』，2006(1).

林春丽,“高校管理的“麦当劳化”倾向及其超越”，『高教论坛』，2009 年 第9 期.

张维迎著,『大学的逻辑』，北京大学出版社，2004.

张应强,“全球化背景下的我国现代大学制度改革”，『高等教育研究』，2013.9.

田友谊,“创新教育的麦当劳化及其超”，『教育发展研究』,2006(15).

朱永新,“書院精神對於當代大學教育的啓示”，『江西高教』,1994年 第2期.

陈佳清,“试析高等职业教育“麦当劳化”，『连云港职业技术学院学报』，2003(1).

秦伯益,“呼唤大学精神的回归”，『科学时报』，2010.11.2.

陈清森,“全球化背景下中国高等教育管理的困境与出路”，『黑龙江教育学院学报』，2016.6.

陳平原,『中國大學十講』，復旦大學 出版部，2008.

蔡文伯,李玉芹,“21世纪以来高等教育全球化研究的现实审视与思考——基于文献计量分析视角”，『高等理科教育』，2015.5.

肖雪慧,“精神回归之路才是希望之路——再谈大学精神”，『社会科学论坛』，2006(4).

邵盈,“当代高等教育中的麦当劳现象”，『南京工程学院学报』，2011(03).

冯建军,“教育发展的根本之道在于尊重教育规律”，『探索与争鸣』，2009(2).

許美德,李軍,林靜,查強 著,『21世紀中國大學肖像:向大眾化高等教育的轉形』，廣西師範大學出版社，2015.4.

叶倩,“从社会的麦当劳化到大学的麦当劳化”，『法制與社會』，2014.11.

何東昌 主編,『中華人民共和國重要教育文獻』,海南出版社,1998.

黄海,“当前我国通识教育的困境与突破”,『現代教育管理』,2014.4.

Ruth Hayhoe and Jian Liu, China's University, “Cross-Border Education and the Dialogue among Civilization,” in David W. Chapman K.Cummings and Gerard A. Postiglione(eds.), Crossing Borders in East Asian Higher Education (Hong Kong: Comparative Education Centre, The University of Hong Kong and Springer, 2010),

Ruth Hayhoe, Comparative Education Research Centre, Portraits of 21st century Chinese universities : in the move to mass higher education, Hong Kong :Comparative Education Research Centre, University of Hong Kong :Springer,2011.

Rui Yang, “China's Soft Power Projection in higher Education”, in International Higher Education, No.46, Winter,2007.

<http://www.moe.edu.cn> 중국교육부 사이트

国家中长期教育改革和发展规划纲要(2010-2020年): 中央政府门户网站, www.gov.cn.

2013年高等学校科技统计资料汇编,『高等教育出版社』, 中华人民共和国教育部科学技术司, 2013

田斌. 大学使命与大学精神的回归, 甘肃政法, 学院网, www.gsli.edu.cn, 2009.5.21.